

처벌기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판단기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대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운전한 뒤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측정됐다.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운전 종료 후 불과 12분 만에 측정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측정 당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가 술에 취한 모습 이었던 점 ▲사고 경위가 음주운전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고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사건에서 위와 같은 '측정 시점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최근 대법원은 앞서 본 판결과 같이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서 '측정 시점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일부 판례의 흐름을 제어하고, 실제 운전 당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른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고 측정치가 처벌기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 당시 취한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포용금융의 비용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금융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금융법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언급하면서다.

실제 은행의 역할은 이미 어느 정도 나눠져 있었다.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출범 초기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부여받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 힘썼다.

반면 시중은행은 기업금융과 담보대출 중심으로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속에서도 기업대출 공급 역할까지 요구받

으면서 건전성과 정책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 결국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빈틈을 메워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책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에 따라 연체율과 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연체율 상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 속에서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건전성 지표 악화를 경계하는 정책 방향이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평가체계 개편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지만, 정장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규제와 책임 문제, 건전성 기준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단순히 '신용평가를 혁신하자'는 구호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업권에 역할을 더 요구하는 데 그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넓혀왔고, 각자 다른 위험을 감당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어느 은행이 더 '착한 역할'을 했는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위험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다.

포용금융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하는 것 만큼, 그에 따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위험은 금융회사에 맡긴 채 정책 목표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현장도, 정책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yu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음 4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년생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72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4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49년생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을 사귀면 길합니다. 61년생 신성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3년생 몸과 정신이 많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85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50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62년생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74년생 갈등만 주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86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51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63년생 주위를 살피고 매사에 항상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75년생 사치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87년생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밖에 일보다 집안에 무슨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6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76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88년생 많은 것을 기대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3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54년생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66년생 잠시나마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78년생 지금처럼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90년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5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흔들림 없이 집중하세요. 67년생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79년생 인생을 더 여유롭게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6년생 파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맑게하세요. 80년생 마음이 다소 흔들리는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57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81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93년생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8년생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70년생 모든 것이 잘 풀려 즐거운 하루입니다. 82년생 아직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94년생 마음을 편히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세요.



59년생 옛 동료를 만나게 되니 고집을 피우지 마세요. 7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83년생 인연이 없으니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95년생 연인과 절교 사건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트럼프는

올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마디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 직후였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일본과 동맹국들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통상적인 외교 무대의 원론적 답변을 예상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답변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트럼프는 "우리는 서프라이즈를 원했다. 일본보다 서프라이즈에 대해 더 잘 아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일본 총리에게 "왜 당신들은 진주만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라고 농담 같은 반문을 한 것이다. 충격적인 화법은 순식간에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절대 말하지 않던 진주만 공습을 꺼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우연일까?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화법의 달인이라고 불린다. 파장을 일으킨 트럼프의 발언 뒤에는 계산된 정치적 의도가 있다. 군사 작전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느냐는 동맹국의 불만을 단번에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과거 일본의 기습을 끌어와서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기습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순식간에 논점을 바꾸어 버렸다. 파격적인 발언은 트럼프 화법의 핵심이다. 외교 무대에서도 트럼프는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밝힌다. 몇 마디 말로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고 협상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들곤 한다. 트럼프 화법은 전통적인 외교 규범을 깨트리면서 국익을 최대한 쟁긴다. 일부에서는 실언 또는 무례함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전략적 선택이다. 메시지를 담아서 핵심만을 찌르고 들어가는 말, 흥내 내기 어려운 트럼프만의 화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5	1	4			8	6
8			6	5		
	2	5	8	4		9
9	7		3	5	1	6
		2	9	8	5	
1						
		4	1			8
3	9		7		2	5

9	4				7	2
1	5		3			9
		9		4		8
	2	4		9		
	8	1	3		6	
	6	7	5			
4		5	6			
2		5			4	7
7	3			6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